

제29대 대교협 회장에 취임한 양오봉 전북대 총장

“대학 재정난 해결에 역점”

“RISE 안착해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제2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3월 1일부터 1년이다.

지난 14일 전북대에 따르면 대교협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나인트리프리미어 로카우스호텔에서 취임식을 열고 양 회장의 본격적인 임기를 알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변창훈 대교협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 임경호 부회장(국립공주대 총장), 이기정 부회장(한양대 총장) 등 신입 회장단과 박상규 전임 회장(중앙대 총장), 김현영 전 강원대 총장(대교협 제26대 회장), 교육부 오석환 차관,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대교협 제15대 회장) 등이 참석해 신입 양오봉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양 회장은 이날 취임 일식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

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대학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난 해소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양 회장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일몰기한 연장 △2025년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안착을 통한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마련 △대학 등록금 자율 조정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양 회장은 “지난 16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재정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대학이 법적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 대학 총장님들과의 소



서울 나인트리프리미어로카우스호텔에서 제2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취임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통을 강화해 대학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대학 간 상생의 틀을 마련해 대교협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오봉 회장은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후,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화학공학 석사,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전북대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3년부터 전북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또한 미국 재생에너지 연구소 방문 연구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위원, 전북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 전문위원, 국무총리산하 새만금위원회 위원, 글로벌대학협의회 제1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제32기 KBS전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특별자치도 RISE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애인 오케스트라 초대 지휘자로 최혁재 지휘자를 선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초대 지휘자 선발

서울대 작곡과 출신 최혁재 지휘자… 오늘자로 임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장애인 오케스트라 초대 지휘자로 최혁재 지휘자를 선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오는 17일자로 임용된다.

최 지휘자는 서울대 작곡과에서 지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빈 국립음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국내 다수의 교향악단을 지휘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2월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도내 장애 공공 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 오케스트라단과 지휘자 공개모집을 했고, 서류전형·실기시험·면접시험을 거쳐 최 지휘자를 최종 선발했다.

최 지휘자와 함께 선발한 장애인 오

케스트라 단원들은 3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맞춤 훈련을 받은 뒤 5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최 지휘자는 “장애인 연주자들이 음악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무대에서 예술적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그동안의 경험과 열정으로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클 것”이라며 “장애를 가진 음악인들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글로벌 브릿지·리더십 캠프’ 참가자 모집

전북교육청, 이달 중 모집… 고교 2학년생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글로벌 브릿지·리더십 캠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교육청과의 교육교류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글로벌 브릿지 캠프가 오는 7월 26일부터 2주간 타코마시 링컨고등학교(Lincoln High School)에서 진행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 워싱턴대학교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한다.

또한 글로벌 리더십 캠프는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페어리킨슨대학교(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FDU)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약 2주간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국제연합(UN) 방문, 명문대 탐방, 글로벌 이슈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연수비는 전액 전북교육청이 지원한다.

캠프 참가자는 도내 고등학교 2학년 이 대상이며, 학교 추천과 영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필기·면접 등)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국제교류·해외연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제12회 미래전북포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3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제12회 미래전북포럼(Future Jeonbuk For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바이오나노 융합기술 신산업 육성 혁신인재양성 사업단,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보건복지부 K-헬스미래추진단 선정 단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조인호 단장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먼저, 선정 단장은 “호남권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필요성과 ARPA-H 사업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호남권의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의료 혁신의 가능성, 그리고 ARPA-H 사업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조인호 단장은 “첨단재생의료의 미래와 전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첨단 재생 의료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미래전북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 생태계 변화와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네트워크 싱크탱크로 2023년 9월 전주대에서 출범했다.

제13회 미래전북포럼은 4월 9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1층 온누리홀에서 전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공동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에듀테크소프트랩

2024년 연차평가서 ‘우수’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에서 운영하는 전북에듀테크소프트랩이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연차평가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전주교육대학교에 따르면 전북에듀테크소프트랩은 에듀테크 기업과 현장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북형 실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에듀테크 산업 발전과 교육 현장 적용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혁신적인 교육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교육 현장에 적합한 실증 활동을 통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공교육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박병춘 총장은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및 학생 맞춤형 수업 지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지난 13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그 무한한 꿈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제12회 미래전북포럼(Future Jeonbuk Forum)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학부모가 믿고 맡기는 청렴한 늘봄학교’

전북교육청, 상반기 늘봄지원센터 워크숍 개최… 안전 귀가 방안도 협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상반기 늘봄지원센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14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및 늘봄지원센터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형 늘봄학교 정책과 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특히 청렴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 담당자의 자세와 청렴한 업무 절차,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등 실무적인 청렴행정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2025 전북형 늘봄학교 정책 방향, 강화된 늘봄학교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전북형 늘봄학교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

한 귀가를 위해 학생 대면 인계, 동행 귀가 등의 관련 지침을 보완했다.

이 외에도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감시카메라(CCTV)·인터폰·비상벨 등 안전설비도 강화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라며 “강화된 안전관리 방안과 질 높은 늘봄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북형 늘봄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시설안전

인증 담당자 교육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190개 학교와 기관 소속 담당자 240여명 대상으로 2025년 교육시설안전 인증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학교와 기관에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취득해야 함에 따라 마련됐다.

전문기관 강사를 초청해 △인증 제도의 소개 및 절차 안내 △자체평가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이에 각 학교에서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면 교육부 지정 전문기관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희망학교 지원 총력

전북교육청, 구독료·컨설팅·플랫폼 등 통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운영 희망학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1학기 AIDT 활용 학교로, 전체 학교의 36.1%인 240개교다.

이들 학교에는 AIDT 구독료를 전액 지원된다.

전북교육청은 AIDT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전북 디지털 수업혁신 플랫폼’도 개설했다.

이 플랫폼에는 AIDT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침을 비롯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달해야 할 필수 안내장,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 등 AIDT 관련 자료가 탑재됐다.

이와 함께 AIDT 도입 과정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 AIDT 적용교원 강사로 활동했던 현장 전문가들이 포함된 컨설팅지원단이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최선의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력신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AIDT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AIDT 운영 희망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